

[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]

2020.03.15

엡 1:1-2

정성록 목사님

엡 1:1-2

-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
-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

- ♣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다.
- ♣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.
- ♣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가득 담겨있는 것이 [에베소서]이다.
- ♣ 옥한흠 목사님께서서는 에베소서를 성도의 저금통장이요 성도의 금고라고 하셨다.
- ♣ 우리가 에베소서를 모르면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.
- ♣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한다.
- ♣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설교를 즐겨하셨다.
- ♣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복음의 네 가지 관점으로 보셨으며, 새로운 공동체,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에베소서라고 한다.
- ♣ 복음의 네 가지 관점은, 첫째는 새로운 생명이며, 두번째는 새로운 사회이고, 세번째는 새로운 기준이며, 네번째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셨다.
- ♣ 복음의 네 가지 관점에 공통적인 것은 [새롭다]라는 것이다.
- ♣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,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, 새로운 생명을 통해,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, 새로운 사회 가운데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며, 새로운 기준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말씀하신다.
- ♣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의 사람 곧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표준적이고,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, 그것은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복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볼 때 정작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- ♣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접했고, 복음을 깨달았으며, 복음을 경험하였으나,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을 왜 계속해서 들어야만 되냐면,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,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.
- ♣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, 매주일마다 이 복음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,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새롭게 되며, 새로운 기준이 되고, 새로운 관계가 되며,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한다.
- ♣ [새로운]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이고, 근본적이고, 뿌리가 되는 구조적인 변화, 어떠한 생각의 전환을 의미한다.
- ♣ 우리가 급진적이고, 근본적이고, 뿌리가 되는 구조적인 변화, 생각이, 기준이,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,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다.
- ♣ 바울은 에베소 서신을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.
- ♣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.

- ♣ 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이다.
- ♣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다.
- ♣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다.
- ♣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, 이 사회가 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.
- ♣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며,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.
- ♣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,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
- ♣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.
- ♣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,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.
- ♣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 않으신다.
- ♣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옛 시대가 가며,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고, 죽음 대신 생명을 주어진단다.
- ♣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연합과 화해를 가지고 오신다.
- ♣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.
- ♣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.
- ♣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을 의미한다.
- ♣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, 헬라 문화가 꽃 피었던 곳이며, 그리스의 식민지이며, 로마의 자치시였다. 오늘날 터키 지역이다.
- ♣ 에베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, 그리스 우상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으며,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도시였고,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, 학문들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다. 우상 숭배를 하였던 상업도시였다. 당시 2만 5천 명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야외극장이 있었다. 도서관도 있었으며,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,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.
- ♣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 의해 바울은 에베소에 도망한 상태였으며, 에베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이다.
- ♣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.
- ♣ 에베소에 서신을 썼던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.
- ♣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사실은 놓치지 않았다.
[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]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, 믿었고, 고백했다.
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처지를 받아 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.
- ♣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.

롬 10:2-3

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

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

- ♣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.
- ♣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므로, 사도 바울은 변화하게 되었다.
- ♣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화하게 되었다. 사도 바울이 기준이,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.
- ♣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게 된 사도 바울.
- ♣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,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.
- ♣ 거울에 비추듯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.

- ♣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.
- ♣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.
- ♣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될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라고 한다.
- ♣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킨다. 즉, 선택에 집중한다.
- ♣ 성경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찾아보면,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.
- ♣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,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.
- ♣ 하나님의 뜻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.
- ♣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, 자신의 처지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.

롬 8:28

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

- ♣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.
- ♣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.
- ♣ 임종 전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두려워하십니다. 구원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.
- ♣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 주신 것이다.
- ♣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.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.
- ♣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.
- ♣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.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.
- ♣ 하나님과 단절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파하셨다.
- ♣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.
- ♣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,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,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.
- ♣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.
- ♣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잊지 않았다.
- ♣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임을 잊지 않았다.

엡 2:20

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

- ♣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받았다.
- ♣ 사도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을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다.
- ♣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.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잊지 않았다.
- ♣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였다.
- ♣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. 그는 그리스도인임을,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임을,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았다.
- ♣ 사도 바울은 그 사명감이,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.
- ♣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.
- ♣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.
- ♣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으며, 하

나눔께서 보내신 자이며,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음을 알았으며,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.

☞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해야 죽는다.

롬 9:16

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

☞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.

☞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.

☞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았으며,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,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다.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.

☞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으시다.

☞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.

☞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.

☞ 우리 안에는 영적 거인이 있으시다. 그 영적 거인은 하나님이시다.

☞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.

☞ 우리 교회에는 쉼마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다.

☞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.

☞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아야 한다.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.

☞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.

☞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,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

요점

☞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아야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.

기도 제목

☎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며,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

적용

✻ 매일 일정 시간에 나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다.